

“도내 R&D 투자, 성공후불제로 해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R&D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간 도내 R&D 지표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 이병철 도의원, 공공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 위해... 공공투자 성과 담보하는 성공후불제 도입 필요 주장

도내 R&D 투자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후불제 방식 R&D 투자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2023년도



지역 R&D 실태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전북은 최근 3년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과인정 SCI 논문 추이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 -1.6%, 특허 출원·등록 -0.3%, 사업화수 -2.7%, 기술료 징수건수 -2.2%, 기술료 징수액 -0.4% 등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D에 투자한 예산은 약 4,300억 규모”라면서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가 자체 R&D 성과 분석 체계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도는 단순 성과조사에 머물러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R&D 정책

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후불방식의 R&D 투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은 “세수가 줄고 그 부담은 지방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라면서 “공공재정의 R&D 투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청년 직무인턴’으로 취업역량 UP!

도내 37개 기관 참여 · 210명 실무체험 기회 제공... 28일까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11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대표 프로그램으로,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직무 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323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25년 상반기에는 총 210명의 청년이 인턴십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철도공사, 전북은행을 포함해 총 37개 기관이 있으며, 청년

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 청년들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5주간 각 기관에서 직무 체험을 수행하며, 인턴십 시작 전에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전북에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으로, 신청은 11월 28일까지 청년 직무인턴 공식 홈페이지(www.jintern.or.kr)를 통해 가능하다.

오택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자치도는 내년에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인원과 지원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인턴십이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고,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긍정양육 문화 확산으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기념식 · 아동권리 체험전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친화체결관에서 ‘전북의 특별한 미래, 아동과 함께 만듭니다’를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아동권리 체험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부모, 아동권리 유관기관 관계자, 아동 200여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2007년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아동의 행복과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날이다.

기념식에서는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수석,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이명연 도의회 부의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원,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에 힘쓰는 유공자 25명에게 포상이 수여

됐다.

이어서 아동 대표가 참여하는 긍정양육 퍼포먼스와 버블쇼 등 가족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긍정양육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로 마련된 아동권리 체험전에서는 전북경찰청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3개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주요 체험 활동으로는 △청소년 경찰학교, △안전 팔찌 만들기, △플라스틱 재활용 비즈팔찌 만들기, △항공 드론 체험, △3D펜 및 프린팅 체험, △아동 합창단 공연과 인형극, △권리탐험대 게시판 등이 마련되어 아동과 부모들이 즐거운 체험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 뉴스에 마음이 아프고, 근절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체험 부스를 돌아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친화체결관에서 ‘전북의 특별한 미래, 아동과 함께 만듭니다’를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아동권리 체험전을 개최했다.

아동 권리를 직접 배우는 기회가 되어, 자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긍정양육 문화가 자리 잡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동학대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동학대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장철 대비 농산물 잔류농약 철저 점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전반 유통망 검사... 2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김장철 주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며 도민의 안전한 김장 준비를 지원한다.

이번 검사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진행되며,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항목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이다. 전북자치도는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잔류농약 허용 기

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회수와 폐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반 농가에는 관할 위생부서와 협력해 농약 사용 지침 준수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원은 검사 검사 기간 이후에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북 도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2024 소상공인 네트워킹 행사’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의 네트워킹과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2024년 소상공인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신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많은 도민과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이템믹싱데이’와 ‘동고동락 한미당 소상공인 장터’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날 한옥마을 라한호텔에서 진행된 ‘이템믹싱데이’는 희망리턴패키지 수혜 소상공인 2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자사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플라마켓 형식의 행사가 열렸다. /이만호 기자



트워킹과 사업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장 방안을 모색하고 선배 창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기회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8일과 9일 경기전 광장 일원에서 열린 ‘동고동락 한미당 소상공인 장터’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수혜 소상공인 2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자사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플라마켓 형식의 행사가 열렸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도민 대상 독감 바이러스 주의 당부

겨울철 유행형 바이러스 검출... 개인위생 철저 · 예방접종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인플루엔자(A형) 바이러스 검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독감 주의의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연계하여 매년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유행양상을 조사해오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10월에 도내에서 유행

해 하반기 첫 인플루엔자 A형(H3N2)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11월 6일에 추가로 A형(H1N1) 바이러스 2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바이러스 유행은 겨울에서 봄 사이에 주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여서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38도 이상의 고열,

두통, 기침,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특히,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향후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독감과 코로나 19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행이 예측되는 바이러스에 대비해 매년 새로 개발되며, 증상 완화와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번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강화에는 교차접종을 통해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아직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은 도민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겨울철 건강을 지켜달라”며, “감염병 예방수칙과 기침 예절을 철저히 준수해 인플루엔자 유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산단 연계 고령 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필요”

새만금청, 새만금 개발 동력확보 전문가 포럼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활용 고령친화기술 개발 시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지난 8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5회차 ‘새만금 개발 동력확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새만금청은 올해 개청 11주년을 맞아 3대 허브(첨단전략, 식품, 관광)를 중심으로 새만금에 연계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격주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포럼에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전북연구원 이종섭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8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5회차 ‘새만금 개발 동력확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있으며, 유럽, 일본 등 해외 고령친화 산업 정책, 산업 동향 및 시장 성장성 등을 토대로 새만금에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종섭 선임 연구위원은 발제 서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앞으로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유럽, 일본 등은 정부 주도의 고령산업 제품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

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도 지난해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고령 친화 산단 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고령 친화 산단 복합단지 지정은 목표로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령 친화 산단 복합단지의 기본 방향은 고령 친화 제품 및 서비스 두 축을 중심으로 제품 기술개발부터 기업 지원, 생산유통, 고령 친화

인력 양성 등 지원 기능을 집적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이어서 이종섭 선임 연구위원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고령 친화 산업기술원, 연구센터, 기업지원단 등 복합단지 구축이 필요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 친화 기술(AgeTech) 혁신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는 한편, 새만금의 트라이포트(공항, 항만, 철도) 입지 강점을 적극 살려 고령 친화 제품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했다.

새만금청 조충남 차장은 “고령화 사회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첨단기술 기반의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새만금이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 전북자치도와 함께 고령 친화 산업 복합 단지 조성방향 등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책기자단이 만난 새만금의 매력

새만금청, 간담회 열고 새만금 개발사업 의견 청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8일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새만금 관련 영상과 글을 시청한 후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부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돼, 영상과 블로그, 웹툰 등에서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리고 있으며, 정책기자단들이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제작한 콘텐츠들은 새만금의 매력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국민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을 주제로 각자의 독창적 시각을 담아낸 대표작을 선보였다.

2025년 인스타를 휩쓸 것들 예정지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백세연 기자는 SNS와 미디어에 적합한 핫플레이스들을 발굴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젊은 세대에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강조했다.

선유도 여촌 마을 체험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강주현 기자는 전통 여촌 마을이 아닌 소박함과 매력을 영상으로 담아내,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치유의 장소로서 새만금을 표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의 현재 개발 상황과 미래 비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를 솔직하게 공유했다. /이만호 기자